

중국

China

1. 중국 스낵시장 소비키워드 : 천연, 고단백질, 저칼로리, 저염

상하이지사

주요내용

▶ 중국 소비자, 건강한 스낵을 추구하다

- 식품의 영양가치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스낵식품을 선택할 때도 매우 신중해지고 있다. 시장연구컨설팅회사 Minteld이 발표한 「스낵식품 소비트렌드-중국2017」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가 스낵류를 구입할 때 천연, 고단백질, 저칼로리, 저염식 건강스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소비자의 61%가 스낵식품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천연’을 꼽았으며, 당분 및 지방섭취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신선 과일 및 채소 혹은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스낵식품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 소비자들은 저칼로리, 남성 소비자들은 고단백질, 고령 소비자들은 저염 스낵식품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견과류 인기에 신제품도 쏟아져

- 건강스낵의 유행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중국 스낵시장에서 견과류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GNPD(Mintel Global New Products Database)의 조사에서 2014~2016년 3년간 중국에서 출시된 신제품을 조사한 결과, 스낵식품 중 견과류 신제품이 전체 품목의 17.5%로 가장 많이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국 견과류 인기 브랜드 ‘싼즈송슈 (三只松鼠)’ |



▶ 수입스낵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면서, 구매 채널도 다양화

- 최근 들어 스낵시장에도 수입산을 찾는 중국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식품을 구매하는 채널은 다양한데 주로 수입식품 전문매장, 여행지,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가격이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편하게 집으로 배송 받을 수 있어 수입식품을 구입하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 중국 대형유통채널 옹후이마트 내 수입식품 취급 전문코너 |



* 참고자료 : 食品商务网(21 Food), 「健康零食来了! 中国零食消费大趋势」(2017.4.10.)

시사점

중국 소비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맛의 스낵식품을 선호하여 수입 스낵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미 많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는 비슷한 맛의 스낵류 보다는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원물간식이나 쌀 스낵 등을 중심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면 수출은 물론 국내 농가소득 증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